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여행·문화·스포츠·이벤트·행사·한눈에
있안으로 찾을 수 있, **쿠팡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팡, 잇샵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전기냉장보관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전자기부 | 전기보일러

조간 제789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음력 6월 12일)

지역과 상생...‘글로벌대학30’으로 더 큰 도약 꿈꾼다

‘취업 강자’ 동신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받으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반산업을 살리는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UCC) 혁신모델로 교육부의 “2025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지정을 받았다.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 UCC를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 전담을 실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계획이어서 강한 지방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졸업생 1500명 이상 일반대 중 취업률 ‘광주·전남 1위’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9월 본지정 준비 총력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신대는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올해 교육부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동신대는 2025년 취업률 69.2%를 기록하며 졸업생 1000명 이상인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12년 동안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졸업생 1500명 이상인 4년제 대학 중 올해 취업률이 전국 17위로 순위권에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인성을 중시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비결이다.

동신대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실무인재 양성 과정과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실무 능력을 쌓고, 전문기 특화 교육, 취업 상담, NCS 교육, 기업 탐방, 취업 캠프 등을 통해 현장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또 DS Star, 대정 프로그램 등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대상 특화코스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신대는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 한전KPS 등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에 48명이 정규직으로 합격했고, 경찰·소방·군 장교 등 공무원 323명, 교사 임용 57명, 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 전문직 국가시험 합격자가 1840명에 이른다. 방사선학과와 경우 4년 연속 100% 국시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보건 의료 계열 학생들이 국가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 병원, 미국 간호사 등 진출도 늘고 있다.

봉사활동, 그룹 스터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14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빈틈없는 성장을 돕는다. 교환학생, 어학연수, 학술연수, 해외봉사, 해외직장체험 등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울 대체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 국기도 뉴질랜드, 유럽, 베트남, 두바이 등으로 다변화해 재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캠퍼스도 글로벌화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동신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700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대학의 위상을 보여줬다.

동신대는 올해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에 향해 대학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공공형 강소연합대학(UCC, 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를 조성, 전남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동신대 연합은 UCC I-N-G 캠퍼스를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기반 산업을 부흥시키는 한편,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위기 극복과 전남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혁신 생태계 구축을 향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UCC I-캠퍼스는 글로벌대학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UCC N-캠퍼스는 기초자치체 중심 국내 정주형 인력 양성 연합캠퍼스이며, UCC G-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지역

학생들의 국제화, 전남 특화산업 ODA 교육과 해외진출을 돕는다.

특히 UCC N-캠퍼스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특화된 기반산업 육성과 혁신을 본격화한다.

△나주 에너지ICT, 그린헬스케어 △무안 미래형운송기기 △목포 휴먼라이프 △영광 e-모빌리티 △함평 첨단부품소재 △신안 미래농생명·신재생에너지 △해남 데이터센터 등 각 지역별 기반산업과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발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해외에 들어설 G-캠퍼스는 In & Out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글로벌캠퍼스로 N캠퍼스 지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도시를 중심으로 G-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신대연합은 미텔스탄트대학, 아헨 공대 등 102개 해외 대학·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UCC를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남의 기반산업과 미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면 지역에 좋은 기업이 늘어 청년들이 정착하고, 정주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글로벌 대학 본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자신의 학습계획 점검하고 생활리듬 유지해야”

■ 202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D-100일

광주시교육청, 수험생에 당부...수능 시행방안 마련도
 ‘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올 첫 도입...차질 없도록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수험생이 수능 D-100일을 기점으로 학습 전략과 생활관리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일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은 수험생들에게 수능까지 남은 100일 동안 학습 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수능시험 시간표에 따라 실천 중심으로 학습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취약 과목 보완,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반복,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 활용 정리 등을 권고했다.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시간과 식사 관리, 건강 및 컨디션 관리 등으로 생활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고3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는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교사들은 수능 D-100일을 기점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 반복 학습 △6·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경향 분석과 기출문제 반복 학습 △일주일 최소 2~3회 실제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 △정서적 안정과 체력 유지를 위해 수면리듬, 식습관, 운동 루틴을 일정한 유지 △학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원 등도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시교육청도 수능시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험장 운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험장으로 사용될 학교의 방송시설과 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다.

또 수능 응시원서가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각 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어 13일에는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면 도입되는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은 수험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휴대전화 포함)을 활용해 직접 홈페이지(mygsat.re.kr)를 통해 응시원서를 입력하고,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담당교사가 서면으로 원서를 접수해 입력한 뒤 접수했으나, 이번 온라인 사전입력 시행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또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후 반드시 접수처에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원서 접수를 처리해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4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응시원서 작성·접수·변경 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5일 오후 5시까지다.

시교육청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학교현장



2025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10일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에서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6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모든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안내하고,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4일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응원편지를 보내 고3 수험생을 격려한다. 이어 5일부터 광주서석고와 광덕고를 시작으로 고3 교실을

방문해 수험생 응원활동을 펼친다.

이 교육감은 편지를 통해 “초·중·고 12년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남은 100일 조금 더 힘내길 바란다”며 “저 역시 수능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이 시작될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